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팽숙경[†] · 강경자^{*}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The Effect of Wearer's Body Type and Clothing Type, Neutral Tone Combin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Suk-Kyung Paeng[†] · Kyung-Ja Kang^{*}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4. 10. 1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wearer's body type and clothing type, neutral tone combin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s(The 7-point semantic). the stimuli are 90 pictures manipulated with wearer's body type, clothing type and neutral tone variation by computer simulation. The subjects are 54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in Kyung-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consisted of the 5 dimensions(tenderness, cuteness, attractiveness, elegance, intrepidity). Wearer's body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all five factors. Especially, it had the strongest effects on attractiveness. Clothing 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enderness, attractiveness, intrepidity. Neutral tone combina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ll factors except elegance. In regarding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each variable, the combination of clothing type and neutral tone combin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attractiveness, elegance, intrepidity.

Key words: Wearer's body type, Clothing type, Neutral tone combination, Impression formation;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인상형성

I. 서 론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하여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첫 인상은 그 후에 오는 단서를 무시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강혜원, 2000).

의복을 포함한 신체적 외모는 이러한 인상형성에 있어 중요한 비언어적인 단서로 작용하며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신체적 외모는 착용자의 체형, 얼굴 등과 함께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 등의 몸치장에 대한 측면들을 포함하며 이 중 의복은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특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강혜원(2000)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의복단서를 의복유형, 의복스타일, 색채 등으로 보았고 이 중에서 색채는

[†]Corresponding author

E-mail: paeng4you@hanmail.net

가장 눈에 띄는 시각적인 요소로 개인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의복색이나 색상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윤경, 강경자, 2003; 류숙희 외, 2000; 문주영, 강경자, 2003; 이주현, 1995; 차미승, 1992)은 대부분 의복색 단일단서의 영향을 다루기보다는 다른 의복변인과의 조합을 통한 인상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조합된 단서들에 따라 인상형성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색은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이 인체에 착용되어 착용자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복장미가 완성됨을 고려할 때 착용자의 인상은 의복색을 포함한 의복단서들 뿐만 아니라 의복이 착용되는 인체 즉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Douty(1984)는 대인 지각과정에서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 중 특히 착용자의 체형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 Burger(1981)는 지각자가 남자를 평가할 때는 얼굴이 전체 인상의 50%를, 체형이 약 10%를 설명하고 여자를 평가할 때는 체형이 전체 인상의 50%를, 얼굴이 10%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착용자의 외모 중 체형이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김재숙, 김희숙, 1992; 김재숙, 송경자, 2002; 송선옥, 이인자, 2001; 이미숙, 김재숙, 1995)은 남성이나 아동의 체형을 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인상형성시 특히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 여성의 체형을 변인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이들은 체형분류를 정상체형과 마른체형, 비만체형 등의 인물의 중량감만으로 분류하여 키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용자의 키 또한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형의 중요 요소이므로 착용자의 체형을 중량감과 키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한다면 보다 다각적으로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성 착용자의 체형을 키와 중량감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여러 의복단서들 중 특히 인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색을 기본 의복유형인 팬츠차림과 스커트차림에 조합하여 이들 단서들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

형,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알아보고 이들 단서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과 인상차원

인상형성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 Gordon Allport(1937)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은 사람을 처음 만난 30초 동안에 일어나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체격, 국적, 직업, 사회계층이 판단되며 성격, 우월성, 깔끔함, 신뢰감, 성실성까지도 판단하게 된다고 하였다(Hornl, Gurel, 1981).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통합되어 지각자에게 일관된 인상으로 형성되는 것일까. 그것은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으로 설명된다. Asch(1946)는 타인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연관성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고 하였다. 즉 타인이 지닌 특질들 중에는 두드러진 중심 특질이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타인의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며 나머지 주변 특질들은 이 인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상을 형성하는 차원에 대한 연구는 의미미분방법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이를 최초로 사용한 Osgood(1957)은 대인지각의 중요인자를 평가인자, 역능인자, 활동인자로 분류하고 이 중 평가차원이 가장 설명력 있는 중요차원이라고 하였다. 박혜선(1984)은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으로 평가, 활동, 역능, 유행차원을 도출해 냈으며 이 중 평가차원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고 하여 Osgood(195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Damhorst(1990)는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109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은 평가차원, 역능차원, 활동성차원, 사고적 차원으로 범주화되며 이중 역능성차원이 가장 중요차원이라고 보고하여 박혜선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선행연구들에서 의복에 대한 인상차원은 3-6개로 범주화되며 그 속에는 평가, 활동, 능력, 품위, 독특성, 현시성,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등의 요인들이 포함되며 대체로 가장 기본적이며 설명력이 큰 차원은 평가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경, 강경자, 2003; 문주영, 강경자,

2003; 이주현, 1995; 홍병숙, 1993)

이상에서 의복에 의해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차원들이 각 연구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이나 의복단서들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측정도구 문항이나 다른 의복단서들을 변수로 한다면 이상과 다소 다른 차원으로 인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단서

1) 착용자의 체형

대인지각 과정에서 착용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매력 등은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신체적 매력성은 다른 중요한 특질을 능가한다. 이때 신체적 매력성 요인은 그 자체만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질들에 대한 추론에 후광효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Zebrowitz, 1990).

체형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 매력 평가 시 중요한 특성으로 Pedersen(1994)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는 체형, 눈, 얼굴형, 키, 헤어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체형, 헤어, 얼굴형, 다리, 키 순으로 신체적 매력성 평가 시 영향을 주어 체형이 가장 중요한 매력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Douty(1984)는 대체로 지각자들이 마른체형의 착용자를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김재숙, 김희숙(1992)은 정상체형의 착용자가 비만체형의 착용자보다 더 호의적인 외모로 평가되고, 비만체형의 착용자는 정상체형 착용자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아동의 체형을 획적비율로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으로 분류한 이미숙, 김재숙(1995)과 김재숙, 송경자(2002)는 정상체형이 비만체형보다 더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비만체형은 정상체형보다 더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송선옥, 이인자(2001)는 남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의 체형을 비만, 표준, 세신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남성의 체형은 멋스러움과 강인성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 체형은 아동이나 남성의 경우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상형성 시 특히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 여성의 체형을 선행연구들의 체형분류 기준인 중량

감뿐 아니라 키도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다각적으로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의복

우리가 처음 접한 타인에게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다양하지만 인상형성시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외모일 것이다. 특히 타인이 착용한 의복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만이 아니라 확장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의복의 단서로는 의복유형, 스타일, 색채, 문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색채는 가장 표현적인 요소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강혜원, 2000).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유형과 무채색 의복의 명도가 의복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유형은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Francois와 Evans(1987)는 대인지각시 의복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의복스타일보다 의복명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은 의복색은 현시성과 성숙성 차원에, 의복형태는 활동성과 편안성차원에 더 영향을 미치며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고 이정옥 외(1995)도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평가성이 높다고 하였다. 류숙희 외(2000)는 4종류의 무채색으로 된 5종류의 의복형태를 변인으로 하여 의복의 시각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복의 색채에 의해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 차이를 보여 회색과 검정색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흰색은 부드럽고 감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보다 무채색으로 배색된 의복이 더 매력적이고 품위있는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문주영, 강경자(2003)는 상·하의 색상배색과 하의 형태에 따른 캐주얼 웨어 착용자의 인상을 분석한 결과 외모평가요인에서는 하의 형태가 스커트일 경우는 흰색을, 팬츠일 경우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대담성 요인에서는 상의가 흰색일 경우 팬츠가, 검정일 경우는 스커트일 때 높게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의복유형, 스타일, 색상, 톤 조합 등의 의복단서들에 따라 형성되는 인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색은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

용하며 색들의 조합인 배색에 의해서도 각기 다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에 따라 여성착용자의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힌다.
2.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1) 자극물 선정

모델 선정-진주 시내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후 전문가 집단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준거집단에 의해 가장 표준 체형에 가까운 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키 162cm, 몸무게 52kg). 이때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은 제4차 한국표준체위예비조사(2003. 5)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체형 선정-표준체형을 기본으로 먼저 키를 변수로 하여 2종류(작은, 큰)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중량감에 따라 2종류(마른, 뚱뚱한)로 분류하여 표준체형(standard body; SB), 키가 작고 마른 체형(short & thin; ST),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short & fat; SF), 키가 크고 마른 체형(tall & thin; TT),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tall & fat; TF)의 5가지로 분류 선정하였다.

의복 선정-기본 의복유형인 스커트와 팬츠차림으로 분류하고 상의에 체형을 인식할 정도의 적당한 피트감이 있는 라운드 네크라인 가디건을 착용하였다. 이때, 스커트는 무릎 아래 길이의 기본 타이트형으로, 팬츠는 발목을 덮는 길이의 기본 일자형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상 선정-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선호색(김영인 외, 2000)을 참고로 가장 무난하게 선호되는 색상인 무채색을 선정하고 이를 한국표준색표집(1991)의 색상에 준하여 라이트(white; L), 미디움(grey; M), 다크(black; D)의 세 단계 톤으로 분류한 후 각기 조

합하였다. 즉, 라이트/라이트(white/white; L/L), 미디움/라이트(grey/white; M/L), 다크/라이트(black/white; D/L), 라이트/미디움(white/grey; L/M), 미디움/미디움(grey/grey; M/M), 다크/미디움(black/grey; D/M), 라이트/다크(white/black; L/D), 미디움/다크(grey/black; M/D), 다크/다크(black/black; D/D)의 9가지 톤 조합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톤	색상	
	색상	무채색
라이트(Light)		N9
미디움(Medium)		N5.5
다크(Dark)		N2

(2) 자극물 제작

선정된 의복을 착용한 모델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사진 자극물을 CAD system(gerber)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5가지 체형으로 변형 조작하였다. 다음으로 의복의 상·하의에 각각 9가지 톤 조합이 되도록 색상을 변환한 후 hp deskjet 9600을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5), 의복유형(2), 톤조합(9)을 각기 다르게 조합하여 총 90개의 자극물(15×21cm)이 제작되었다. 이 때 헤어 스타일과 자세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체형(5), 의복유형(2), 톤 조합(9)을 독립변인으로 한 3원 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5×2×9)에 의해 조합된 총 90개의 자극물을 45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관찰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복착용자와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김윤경, 강경자, 2003; 김재숙, 김희숙, 1992; 송선옥, 이인자, 2001; 이주현, 1995; 차미승, 1992) 등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30개의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0개의 형용사쌍을 추가하

<표 2> 자극물의 조작내용

의복 유형	체형	표준체형(SB)		키가 작고 마른 체형(ST)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SF)		키가 크고 마른 체형(TT)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TF)	
		스커트 차림(S)	팬츠 차림(P)	스커트 차림(S)	팬츠 차림(P)	스커트 차림(S)	팬츠 차림(P)	스커트 차림(S)	팬츠 차림(P)	스커트 차림(S)	팬츠 차림(P)
톤 조합											
라이트/라이트(L/L)		SBSLL	SBPLL	STSLL	STPLL	SFSLL	SFPLL	TTSLL	TTPLL	TFSSL	TFPLL
미디움/라이트(M/L)		SBSML	SBPML	STSMML	STPML	SFSML	SFPML	TTSML	TTPML	TFSSL	TFPML
다크/라이트(D/L)		SBSDL	SBPDL	STSDL	STPDL	SFSDL	SFPDL	TTSDL	TTPDL	TFSDL	TFPDL
라이트/미디움(L/M)		SBSLM	SBPLM	STSLM	STPLM	SFSLM	SFPLM	TTSLM	TTPLM	TFSLM	TFPLM
미디움/미디움(M/M)		SBSMM	SBPMM	STSMML	STPMM	SFSMM	SFPMM	TTSMM	TTPMM	TFSSMM	TFPMM
다크/미디움(D/M)		SBSDM	SBPDM	STSDM	STPDM	SFSDM	SFPDM	TTSDM	TTPDM	TFSDM	TFPDM
라이트/다크(L/D)		SBSLD	SBPLD	STSLD	STPLD	SFSLD	SFPLD	TTSLD	TTPLD	TFBSLD	TFPLD
미디움/다크(M/D)		SBSMD	SBPMD	STSMML	STPMD	SFSMD	SFPMD	TTSMD	TTPMD	TFSSMD	TFPMD
다크/다크(D/D)		SBSDD	SBPDD	STSDML	STPDD	SFSDML	SFPDD	TTSDML	TTPDD	TFSSDD	TFPDD

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26개의 형용사쌍이 최종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을 기준으로 좌측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5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6월 중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착용자의 체형, 의복형태,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여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인상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26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8$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분석으로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인상차원의 요인분석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상·하의의 무채색 톤 조

합에 변화를 준 90개의 자극물에 대한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6개의 형용사쌍을 의미미분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된 인상차원은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의 5개 요인으로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7, .86, .83, .71, .56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6.7%로 부드러운-딱딱한, 온화한-신경질적인, 배려깊은-독선적인, 따뜻한-차가운 등이 포함된 7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에 대해 16.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산뜻한-칙칙한, 밝아 보이는-어두워 보이는, 어려 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귀여운-성숙한 등 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어 귀염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12.2%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보기좋은-보기싫은, 날씬해 보이는-뚱뚱해 보이는, 매력있는-매력없는, 키가 커 보이는-키가 작아 보이는 등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날씬해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등의 형용사쌍이 이 요인에 포함된 것은 큰 키와 날씬한 체형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매력성에 대한 시각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인 4는 품위있는-품위없는, 차분한-들뜬, 조화로운-조화롭지 못한 등의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1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 5는 전체변량에 대해 5.7%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강한-약한, 대담한-소심한 등 2개의 형용사쌍으

<표 3>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인상차원 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 ²)
요인 1. 온유성						
부드러운-딱딱한	.781	.210	.193	-.035	-.058	.697
온화한-신경질적인	.771	.197	-.136	.174	-.018	.682
배려깊은-독선적인	.757	.201	-.072	.063	-.047	.625
따뜻한-차가운	.746	.098	-.061	-.113	.051	.585
유순한-고집스러운	.718	.029	.273	.045	-.184	.627
상냥한-통명스러운	.670	.273	.260	.087	-.047	.601
여유로운-조급한	.659	-.025	-.154	.257	.058	.528
요인 2. 귀염성						
산뜻한-칙칙한	.226	.763	.171	.194	.016	.701
밝아 보이는-어두워 보이는	.355	.746	.099	.147	.113	.727
어려 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120	.724	.127	-.040	-.036	.558
시원스러운-답답한	.102	.711	.268	.189	.155	.648
가벼운-무거운	.025	.706	.327	.179	-.179	.670
귀여운-성숙한	.165	.644	-.083	-.158	-.036	.475
화려한-수수한	.022	.541	.333	-.060	.280	.485
요인 3. 매력성						
보기좋은-보기싫은	.022	.179	.770	.338	-.060	.743
날씬해 보이는-뚱뚱해 보이는	-.240	.249	.688	.378	-.138	.755
매력있는-매력없는	.171	.396	.682	.229	.028	.705
키가 커 보이는-키가 작아 보이는	-.019	-.006	.640	.265	.254	.544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140	.379	.625	.020	.236	.609
요인 4. 품위성						
품위있는-품위없는	.121	.110	.189	.761	.016	.642
차분한-들뜬	.109	-.218	.129	.646	-.120	.509
조화로운-조화롭지 않은	.219	.208	.257	.643	.067	.575
부티 나는-빈티 나는	.167	.277	.161	.570	.321	.558
이성적인-감성적인	-.336	.008	.217	.532	.150	.465
요인 5. 대담성						
강한-약한	-.223	-.188	-.044	.155	.743	.663
대담한-소심한	.021	.320	.249	-.026	.668	.611
고유치	4.336	4.297	3.168	2.705	1.484	15.990
전체 변량의 %	16.677	16.525	12.185	10.405	5.706	61.498
공통 변량의 %	27.117	26.873	19.812	16.917	9.281	100.00

로 구성되어 대담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온유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배려깊고, 따뜻하고, 상냥한 것으로, 귀염성 요인에서는 산뜻하고, 밝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매력성 요인에서는 보기 좋고, 날씬해보이고, 매력 있으며 키가 커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 요인에

서는 품위있으며 차분하고, 조화로우며 부티 나는 것으로, 대담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전체변량에서 5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1.5%이며 이 중 온유성과 귀염성 요인이 공통변량의 54%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을 단서로 하여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효과는 단서가 착용자의 체형일 경우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복유형인 경우에는 온유성, 매력성, 대담성 요인에서, 단서가 무채색 톤 조합인 경우에는 품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 즉,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대담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단서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온유성 요인에서는 단서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아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 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단서들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상차원 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모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착용자의 체형은 온유성 인상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각 단서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표 4>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과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변량원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주 효 과	체형(A)	20.581	24.675**	15.997	21.469**	105.593	186.018**	19.417	21.236**	22.574	25.879**		
	의복유형(B)	10.446	12.525**	.361	.485	5.274	9.291**	1.663	1.818	25.848	29.631**		
	톤조합(C)	9.529	11.425**	23.161	31.084**	1.635	2.880**	.694	.759	4.226	4.845**		
2원 상호작용 효과	A×B	.322	.386	.831	1.115	.616	1.085	.966	1.056	1.414	1.621		
	A×C	1.051	1.260	.886	1.189	.545	.960	1.178	1.288	.626	.718		
	B×C	1.036	1.243	.607	.814	1.182	2.083*	1.730	1.892*	1.736	1.990*		
3원 상호작용 효과	A×B×C	.998	1.197	1.288	1.728**	.721	1.271	.900	.984	.578	.663		
MCA	변인	수준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체형	표준	.00		-.01		.36		.13		-.10	
	키가 작고 마른		-.32		.38		.24		.18		-.47		
	키가 작고 뚱뚱한		.34		-.16		-.85		-.31		.00		
	키가 크고 마른		-.30		.14		.86		.34		.13		
	의복 유형	스커트차림	.10		-.02		-.07		-.04		-.16		
		팬츠차림	-.10	.10	.02	.02	.07	.07	.04	.04	.16	.16	
		톤 조 합	라이트/라이트	.10		.77		-.27		-.03		.14	
			미디움/라이트	.22		.24		.03		.01		-.03	
	다크/라이트		-.19		.14		.07		.04		.07		
	라이트/미디움		.48		.23		.01		.13		-.34		
	미디움/미디움	-.10		-.32		-.05		-.14		-.12			
	다크/미디움	-.18		-.39		.07		.00		.06			
	라이트/다크	.25		.39		.10		.08		-.06			
	미디움/다크	-.10		-.48		.07		-.01		-.10			
	다크/다크	-.45	.27	-.55	.43	-.03	.10	-.09	.08	.37	.19		
	Multiple R ²		.165		.244		.431		.083		.147		
	Multiple R		.406		.494		.656		.288		.383		

않았다. 각 단서들의 주효과를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살펴보면 착용자의 체형은 뚱뚱한 체형인 경우 부드럽고 온화하며 배려깊은 것으로, 반면에 마른 체형은 딱딱하고 신경질적이며 독선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온유성 차원의 인상형성에는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 중 키보다는 중량감이 보다 큰 영향을 주는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뚱뚱한 체형의 착용자가 정상체형보다 더 호의적인 화친차원의 인상을 준다는 김재숙, 김희숙(199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의복유형은 스커트차림, 무채색의 톤조합은 라이트/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라이트 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부드럽고 온화하며 배려 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유채색보다 무채색이,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라이트/다크, 라이트/미디움의 톤 조합이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윤경, 강경자(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 귀염성 차원

귀염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착용자의 체형, 무채색 톤 조합이 주효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유형은 주효과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착용자의 체형, 톤 조합과 상호작용하여 귀염성 인상차원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주효과를 살펴보면 착용자의 체형은 마른 체형이 산뜻하고 어려보이며 귀여운 것으로 지각되었고, 반면에 뚱뚱한 체형은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때 마른 체형은 키가 작을 때 귀염성 인상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뚱뚱한 체형은 키가 클 때 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주어 키보다 중량감이 귀염성 차원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며 키는 여기에 가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유형은 팬츠차림, 무채색의 톤조합은 라이트/라이트, 라이트/다크,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인 경우 산뜻하고 어려보이며 귀여워 보이는 것으로, 반면에 스커트차림에 다크/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미디움, 미디움/미디움 인 경우는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한 것으로 지각되어 톤조합이 주는 인상은 온유성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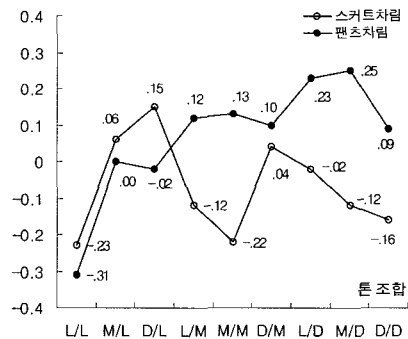
3)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착용자의 체

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모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착용자의 체형은 매력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력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효과는 체형을 제외한 의복유형과 톤 조합에서만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유형이나 색상 톤에 상관없이 체형 그 자체가 매력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됨을 의미한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체형이 주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표준체형, 키가 작고 마른체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키가 크고 마른체형이 가장 보기 좋고 날씬해 보이며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뚱뚱한 체형은 보기 싫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매력적인 인상차원에서는 중량감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며 키는 여기에 가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던 의복유형과 톤 조합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의복유형 즉 스커트차림과 팬츠차림에 관계없이 다크/미디움, 미디움/라이트는 매력있는 것으로, 반면 라이트/라이트는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는 의복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다크/라이트는 스커트차림이 매력있고,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는 팬츠차림이 매력있는 것으로, 스커트차림은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는 동일한 톤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의의 조합에 따라 의복유형 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여 상의가 다크이고 하의가 라이트일 경우



<그림 1> 매력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유형과 톤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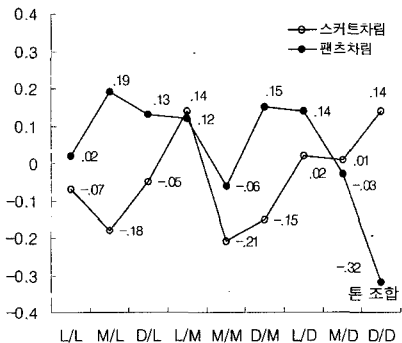
스커트 착용자가 매력있는 것으로, 반면에 상의가 라이트이고 하의가 다크일 경우는 팬츠 착용자가 매력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리고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미디움, 다크/다크 등 동일 톤으로 조합된 경우 스커트차림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상하동색인 무채색의 스커트차림은 매우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의복유형과 톤 조합에 따라 매력성 차원에 대한 이미지가 특정한 경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하의가 흰색일 경우는 팬츠차림보다는 스커트차림이 덜 부정적으로, 하의가 회색이나 검정인 경우는 바지차림일 때 착용자의 매력성 인상차원에 보다 호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의가 팬츠일 때는 검정색을, 하의가 스커트일 때는 흰색을 착용하는 것이 외모평가에 효과적이라는 문주영, 강경자(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어떤 특정의 톤 조합이나 의복유형이 고정되어 매력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품위성 차원

품위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주효과로는 착용자의 체형만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유형과 무채색의 톤 조합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착용자의 체형이 품위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착용자가 가장 품위 있는 것으로, 반면 뚱뚱한 체형은 품위가 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특히 중량감이 품위성 인상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유형과 톤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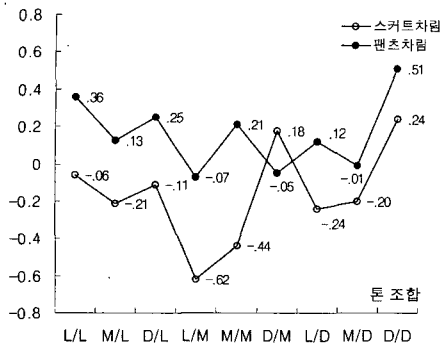
<그림 2> 품위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유형과 톤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

에서 보면 대체로 톤 조합의 유형에 따라 의복유형 간에 품위성 이미지가 일관성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유형에 관계없이 라이트/미디움, 라이트/다크는 품위있는 것으로, 반면 미디움/미디움은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다크/미디움은 의복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팬츠차림은 품위있는 것으로, 스커트차림은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는 스커트차림이 품위있는 것으로 팬츠차림은 매우 품위가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특히 다크/다크의 톤 조합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톤 조합인 미디움/라이트와 라이트/미디움의 경우 팬츠차림일 때는 톤 조합이 미디움/라이트에서 라이트/미디움으로 바뀌어도 톤 조합에 따른 인상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에 스커트차림인 경우 라이트/미디움은 품위있는 것으로, 미디움/라이트는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톤 조합에 따라 품위성 평가에 큰 차이를 보였다. 톤 조합이 동일한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의 경우도 유사한 반응을 보여 의복유형 간에 톤 조합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상·하의의 톤이 같은 동색배색을 보면 미디움/미디움은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라이트/라이트와 다크/다크는 의복유형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팬츠차림의 경우 라이트/라이트는 품위있는 것으로, 다크/다크는 매우 품위없는 것으로, 반면에 스커트차림의 경우는 라이트/라이트가 품위가 없는 것으로 다크/다크는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의복유형이나 톤 조합이 독립된 요인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이들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므로서 동일한 의복유형도 톤의 조합 정도에 따라서 품위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5) 대담성 차원

대담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모두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이 대담성 인상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대담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효과는 의복유형과 톤 조합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하여 착용자의 체형이 대담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키가 큰 체형이 강하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키가



<그림 3> 대담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유형과
톤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

크고 뚱뚱한 체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 가장 약하고 소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대담성 차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과 톤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톤 조합의 유형에 따라 의복유형 간에 다크/미디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유형이 팬츠차림인 경우는 라이트/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를 제외한 모든 톤 조합이 대담성 이미지에 효과적이고 특히 다크/다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반면에 스커트차림은 톤 조합이 다크/미디움, 다크/다크일 때 대담성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어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미디움/다크, 다크/다크를 제외한 톤 조합에서 의복유형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의복유형에서는 전체적으로 스커트차림보다 팬츠차림이 대담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크/다크는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를, 반면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다크는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를 주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톤 조합은 의복유형과 상호작용하므로서 동일한 톤 조합이라도 의복유형에 따라서 대담성 이미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의 변화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26명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및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온유성 요인, 귀염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대담성 요인 등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2.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및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 온유성 차원의 인상에는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체형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단서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뚱뚱한 체형, 바지차림보다 스커트차림,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 라이트/다크(흰색/검정),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의 톤 조합이 온유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 귀염성 차원의 인상에는 체형과 무채색 톤 조합이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톤 조합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의복유형은 체형, 톤 조합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었다. 마른 체형, 팬츠차림,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 라이트/다크(흰색/검정),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 다크/라이트(검정/흰색)는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반면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스커트차림, 다크/다크(검정/검정)는 가장 칙칙하고 나이들어 보이며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는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체형이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여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가장 매력있는 반면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의복유형과 무채색의 톤 조합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움/라이트(회색/흰색), 다크/라이트(검정/흰색)는 스커트차림이, 그 외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를 제외한 톤 조합은 팬츠차림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전체적으로 하의가 흰색일 경우는 스커트차림이, 회색이나 검정일 경우는 팬츠차림이 매력성 인상차원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커트차림의 경우 상하동색인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 미디움/미디움(회색/회색), 다크/다크(검정/검정)가 특히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동일한 톤 조합인 다크/라이트(검정/흰색)와 라이트/다크(흰색/검정)는 상·하의의 톤이 바뀔 때 따라 의복유형 간에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 품위성 차원의 인상에는 착용자의 체형만이 유의

적인 영향을 미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가장 품위 있는 반면 뚱뚱한 체형은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유형과 톤 조합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 라이트/다크(흰색/검정)는 품위있는 것으로, 미디움/미디움(회색/회색)은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라이트/라이트(흰색/흰색), 미디움/라이트(회색/검정), 다크/라이트(검정/흰색), 다크/미디움(검정/회색)은 팬츠차림이, 미디움/다크(회색/검정), 다크/다크(검정/검정)는 스커트차림이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동일한 의복유형도 톤의 조합 정도에 따라서 품위성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다.

· 대담성 차원의 인상에는 착용자의 체형,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체형과 의복유형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대담하고 강한 것으로 지각된 반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가장 소심하고 약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의복유형과 톤 조합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대체로 톤 조합의 유형에 따라 의복유형 간에는 일관된 차의 방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다크/미디움(검정/회색)을 제외한 모든 톤 조합에서 팬츠차림이 스커트차림보다 강하고 대담한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다크/다크(검정/검정)는 의복유형에 상관없이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로, 반면 라이트/미디움(흰색/회색), 미디움/다크(회색/검정)는 소심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은 여성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특히 착용자의 체형은 각 인상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단서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의 신체적 매력 평가시 체형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시사한 Burger(1981)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의 매력성 평가에는 착용자의 의복도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지만 이 보다 의복착용자의 체형이 근본적으로 매력성 인상형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인 중량감과 키는 각기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인상차원에서 두드러진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것은 중량감이며 키는 여기에 가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자가 의복 착용자를 접했을 때 체형을 분류하는 요소 중 키 보다는 중량감 즉 무게감이 먼저 시선을 끄는 단서

로 작용하며, 또한 지각자가 체형을 의식할 때 키 보다는 중량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후 키를 의식하게 됨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의 단서들은 상호작용하여 독립된 단서로 작용할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착용자의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인상형성 시 제시되는 각 단서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단서들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며 형성된 최종 인상은 각 정보들을 합한 것 이상이 된다는 Asch의 이론을 잘 뒷받침 해주며, 이 세 단서들이 서로의 관련성에 따라 어떻게 묶여져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이 세가지 단서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으므로 의복착용자는 먼저 자신의 체형을 고려한 후 의복유형과 무채색 상·하 배색 등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본인이 추구하는 인상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의 인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고되었으나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의 체형을 변인으로 하였다. 점과 체형분류에 있어 중량감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키도 변수로 하여 체형을 분류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여성의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자극물에 있어 흑백 선 그림 자극물이 아닌 표준체형의 여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이용하여 5가지 체형으로 변형 조작하여 실제 의복을 착용한 모습의 사실감 있는 칼라 자극물을 사용하여 보다 실제 상황에 접근하여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를 20대 여대생으로 한정하였고 자극물의 수가 너무 많아 의복 단서들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의복을 착용한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인해 모델의 얼굴 표정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혜원. (2000).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선호

- 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재숙, 김희숙. (1992).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한국의류학회지*, 16(4), 371-377.
- 김재숙, 송경자. (2002). 체형 및 의복색이 남자 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29-37.
- 류숙희, 최재란, 박종희. (2000). 의복색채에 의한 시각적 평가.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5.
-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111-122.
- 박혜선, 이은영. (1984).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의 구성요인 도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9, 103-107.
-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69-378.
- 이미숙, 김재숙. (1995).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제1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1017-1026.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 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표준색표집*. (1991).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홍병숙, 정미경. (1993). 여성수트의 이미지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73-82.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urger, H. I. (1981). *Dimens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How others se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 Damhorst, M. 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Douty, H. I. (1963).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5(3), 197-202.
- Francois, S. K., & Evans, P. K. (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 Motor Skills*, 64(2), 383-390.
- Gordon Allport. (1937). *Personality-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Company.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Osgood, Charles E, Suci, George J, Tannenbaum, & Percy,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Chicago: Uniaersity of Illinois Press.
- Pedersen & Markee. (1994). Gender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reported to be important features of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9, 1539-1544.
- Zebrowitz, L. A. (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